

농협 광주 '무인로컬푸드직매장' 매출 쑥쑥 자란다

광산구청 점포 등 6곳 운영...1년 매출 2억3천만원 농산물 분실 1년간 1.2%뿐...인건비 절감 등 효과 우산동 7호점 개소

1980년 오월,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절도 사건이 없었던 정도로 질서를 지켰던 광주 시민정신이 또 한 번 빛을 냈다. 농협이 지하철역 등 광주지역 6곳에서 운영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난 한 해 없어진 상품은 전체 진열품의 1.2%에 불과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여러 공간에 물건을 나눠 쌓아 놓았지만 없어진 비율이 1%대에 그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예다. 농협은 정가보다 적은 돈을 넣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면 거의 분실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인 매장을 더 늘리고 있다. 인건비도 줄이고 다양한 장소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과 광산구청은 광산구 우산동 NH농협은행 광주영업부(부장 임영택)에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7호점' 문을 열었다. 평동농협은 지난해 5월 19일 광산구청 1층 로비에 처음으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열었다. 이 로컬푸드직매장은 따로 관리하는 직원없이 물건이 떨어지면 채우고 현금보관함의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물론 설치장소가 공공장소 구청 공무원과 민원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지만 이후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없었다. 이에 같은 해 6월 24일에는 수완동주민센터와 지하철역 평동역사, 같은 해 9월 17일 첨단1동주민센터, 신창동주민센터

에 잇따라 무인 점포를 내게 됐다. 물건만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도 증가했다. 인건비도 줄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들 점포에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애호박, 오이, 감자 등 주로 계절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하루 매출이 많은 점포에서는 50만원어치의 농산물이 팔리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광산구청 하루 매출 40만원(이하 평균), 누적매출액 9578만원 ▲우산동주민센터 하루 29만원, 누적 6467만원 ▲평동역사 하루 19만원, 누적 4697만원 ▲첨단1동주민센터 하루 6만원, 누적 875만원 ▲신창동주민센터 하루 6만원, 누적 885만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 4월 문을 연 NH농협은행 첨단지점에서도 하루 매출 52만원, 누적 519만원을 기록해 무인 매장에서만 2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연이 이 기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지난 16일 광산구 우산동 NH농협은행 광주영업부에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7호점' 문을 열었다. 농협이 광주지역 7곳에서 운영한 무인매장에서 지난 한 해 사라진 농산물은 전체 진열품의 1.2%에 불과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간 들어간 인건비는 한 푼도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계산을 잘못해 돈을 적게 넣었거나 도난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산물은 6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는 아예 사라지는 물품이 없었고 매장이 늘다 보니 아주 미미하게 돈이 맞지 않았다"며 "이정도의 시민정신이면 무인

매장을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광주지역 농협은행 창구에 추가 오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을 뿌립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고려인 동포,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1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광주 자원봉사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복꾸러미 생필품 상자'를 만들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고려인마을에 생필품 꾸러미

세제·치약 등 100세대 전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가정의 달을 맞아 1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광주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 특수 나눔계층인 고려인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에는 고려인마을 신조아 대표를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과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함께 모여 행복꾸러미 생필품 상자를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행복꾸러미 상자는 김, 참치, 라면, 샴

푸, 린스, 세제,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활 필수품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낯선 모국의 땅으로 이주해 일용직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 3000여 명이 모여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 100세대에게 전달했다. 강인식 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작년 이어 지속적으로 고려인마을 동포들이 광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 1분기만에 흑자 매출 2659억원...당기순익 174억 늘어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산업이 올해 1분기 흑자경영에 성공했다. 지난해 워크아웃 졸업 후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내실경영으로 확연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호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2659억원, 영업이익 96억원, 당기순익의 247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

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이고 당기순익은 17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호산업은 작년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7381억원의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성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내실경영에 집중하고 수익성 중심의 수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구조조정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타이어, 크라이슬러 퍼시픽카에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의 미니밴 '2017년 퍼시픽카(Pacifica)'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퍼시픽카는 크라이슬러 '타운&컨트리'의 후속으로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모델로,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미니밴이다.

이 차량에 탑재되는 금호타이어의 '솔루스 TA31'은 세계철용 프리미엄 타이어로 부드러운 승차감과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6년부터 크라이슬러의 '세브링' 제단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다양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8.06 (+0.15)
-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1)
- ▼ 코스닥 695.95 (-5.51)
- ▼ 환율 (USD) 1173.70원 (-6.00)

국내 소비자들 한국 닷산에 집단소송

배출가스 조작...폭스바겐 이어 두번째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닷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전날인 16일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우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닷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기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해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 하나로 통합

삼성전자가 해외 조직 슬림화 차원에 서 러시아 법인 두 곳을 하나로 통합했다. 17일 삼성전자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SERC)과 삼성전자 러시아 서비스 법인(SRSC)이 합병했다. 러시아 현지법인은 2006년 설립됐으며 러시아 서비스 법인은 이보다 앞선 1997년 만들어졌다. 합병 형태는 현지법인이 서비스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은 총자산 5900억원인 규모이며 서비스 법인은 총 자산 224억원으로 훨씬 작은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4년 연말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두 곳으로 운영되던 미국판매법인을 하나로 통합한 바 있다. 가전사업 중심이던 뉴저지 소재 SEA 법인과 모바일 중심의 델러스 소재 STA 법인 두 곳으로 운영하던 현지법인을 SEA법인으로 단일화해 뉴저지 통합 본사로 합쳤다. /연합뉴스

화순 맛과 멋, 문화의 고장으로 놀러오세요!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Hwasun Jeokbyeok

화순 세량지 Hwasun Seoryangji

화순 운주사 Hwasun Unjusa

화순 고인돌 유적지 Hwasun Dolmen Site